그 옛날 불교는 그림자극으로 설법했다

국립민속박물관 · 무속학회 '만석중득도기' 학술대회

안정사 땅설법 중 그림자극 '호국삼부경' 신앙과 연관돼 불교 포교극으로 가치 높아 민속博 땅설법 '아카이브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석중득도기를 설행하고 있는 안정사 신도.

동아시아 유일 속강(俗講)인 땅설법의 구비경전(레퍼토리) 중 별전인 '만석중득도기'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한국무속학회는 공동으로 11월 12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우리 그림자극의 경이로운 발견, 땅설법 만석중득도기'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삼척 안정사에서 전승된 땅설법 '만석중득도기' 시연을 진행했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강(講), 창(唱), 연(演)을 통해 불교교리를 포교하거나 학습하는 전통적인 설법이다. 그간 단절된 줄 알았으나 지난 2018년 삼척 안정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며 불교 및 민속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별전인 그림자극 '만석중득도기'를 조명한 것으로, 안정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날 밤에 공양물을 준비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만석중득도기'를 설행해왔다.

'만석중득도기'는 '만석'이라는 인물이 득도해 덕이 높은 스님이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략적 내용은 이렇다. 갖은 고생을 하던 만석은 초파일 관등 구경을 하던 중 스님의 권유로 그의 행자가 된다. 어느 날 '호국삼부경' 중 〈금광명경〉을 선지식이 설하는 자리에서 만석은 깜빡 졸게 되는데, 꿈에서 만석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게 된다. 하지만 이윽고 꿈에서 깬 만석은 속세의 덧없음을 깨닫고 열심히 수행해 국사가 된다.

학술대회에서 김형근 전북대 연구교수는 '서사가 있는 만석중연회, 땅설법 만석중득도기'를 통해 불교 포교극으로서의 땅설법의 가치를 살폈다.

김 교수는 '만석중득도기'에서 민중들에게서 신심을 끌어내는 장치는 '호국삼부경' 신앙에 있다고 봤다. 그는 "'만석중득도기'의 서사가 시작되기 전 〈금광명경〉이나 '호국삼부경'에 대한 공경 의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서 "만석이가 〈금광명경〉 강설 중에 속과 승의 경계를 넘나들고 마침내 승의 세계로 온전히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금광명경〉의 인연을 서사적으로도 강조한다. 가장 마지막에 참석 대중에게 축원을 해줌으로써 땅설법 수요자의 신앙적 바람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땅설법은 참석대중에 민감히 반응한다. 오로지 불교교리를 설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눈높이 설법"이라며 "'만석중득도기'의 서사가 어디로 가던지 땅설법 중간 중간 신도들이 참여하고 호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교교육적'으로 가치있다"고 봤다.

또한 땅설법 '만석중득도기'가 단순히 그림자극으로만 연행되지 않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땅설법은 구비경전을 그린 변상도가 필수 연행도구"라며 "이 그림이 저녁에는 보이지 않기에 그림자와 영등을 활용한 공연이 생겼다. 땅설법은 어떤 레퍼토리이든 저녁에 불빛이 없을 때는 그림자극으로 연행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사 땅설법 '만석중득도기'의 한 장면. 안정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 밤에 설행된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삼척 안정사의 재(齋)와 땅설법의 보존을 위해 모든 과정을 촬영해 아카이브 자료로 집적하고 있다.

화엄사 소장 '국보 비로자나삼신불' 본격 조명

화엄사 · 불중博 11월 13일 대화엄사 특별전 학술세미나

최성은 "전통 · 新양식 공존"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의 대표적인 성보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하 삼신불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삼신불상은 17세기 벽암각성 스님이 화엄사를 중창할 당시 조성돼 대웅전에 봉안됐으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화엄사는 물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손꼽히고 있다.

화엄사와 불교중앙박물관이 11월 13일 '17세기 화엄사 중창과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주제로 지리산 대화엄사 특별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가 '전통 도상과 양식의 계승-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주제로 발제한 데 이어,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전근대 지리산 화엄사의 역사 연구와 쟁점', 유근자 동국대 교수의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에 관한 기록 분석', 송일기 중앙대 교수의 '구례 화엄사 노사나불 복장 전적' 발표가 진행됐다.


올해 6월 국보로 지정 화엄사의 삼신불좌상. 사진 왼쪽부터 석가모니불(왼쪽), 비로자나불(주불), 노사나불(오른쪽)의 모습.

최성은 교수는 삼신불상의 도상적 가치를 불상의 비례에서 찾았다. 다른 불신에 비해 두부(頭部)를 크게 제작해 위엄있는 상호를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어깨가 좁은 단구형의 불신이 예배자를 압도하는 위용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는 17세기 전반에 개전된 다른 사찰의 불상들이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길며 무릎폭도 넓은 장신형인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삼신불상은 벽암각성의 주도 아래 왕시로가 종친, 화엄사 산중대덕, 주변의 여러 불교도들이 동참발원해 거행한 거국적 불사로 차별성을 가진다"며 "특히 삼신불상에서 나타나는 신구(新舊) 양식의 공존은 당시 현진파의 응원 · 인균파 조각승들이 당시의 거대하고 과장된 명대 양식에서 탈피해 고대 전통양식에서 해답을 찾으려던 새로운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 대웅전과 삼신불상은 벽암각성 스님이 화엄도량을 중건하면서 조성한 성보문화유산으로, 선교양종대가람의 법륜을 400년간 간직한 화엄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불상의 복장이 훼손된 상태로 오랜 세월 제 모습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화엄사 사부대중 전체가 일심이 되어 부처님 전에 발원해 재복장의 대작불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 과정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오늘 세미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삼신불상은 새롭게 발견된 후령통과 시주질 2점을 포함해 올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았다"며 "동참대중들의 지극한 정성이 좋은 인영공덕으로 회향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도 "오늘 세미나는 특별전시의 중심 주제인 삼신불상과 복장유물을 학계에 소개하고 국보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라며 "삼신불상은 조선후기 불상으로는 최초로 국보에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제31회 불미전 대상 수상작에 김용남作 '49일간의 행복' 선정

오는 12월 2일 시상식… 12월 2~15일 전시회

제3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전 대상에 김용암의 조각 작품 '49일간의 행복'이 선정됐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원행)는 11월 15일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수상작 전시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제31회 불미전 대상작 김용암의 '49일간의 행복'

대상(총무원장상)에는 조각부문 김용암의 '49일간의 행복', 최우수상 2점은 회화부문 박청용의 '만배'와 공예부문 송은선의 '철제은입사여의', 우수상 3점은 회화부문에 행오 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조각부문 오삼록의 '건칠지장상현좌보살상', 공예부문 조대용의 '여유'가 선정됐다.

제3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는 불교회화 80점, 불교조각 10점, 불교공예 30점 등 총 120점이 응모했고, 각 분야별 3명씩 총 9명의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과정과 토론을 거쳐 분야별로 입상작을 선정했다. 이 중 수상작은 총 40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5점, 입선 23점이다.

대상을 수상한 김용암의 '49일간의 행복(부처님-98×95×117cm 맥반석, 좌대-126×95×58cm 화강암)'은 고행을 마치고 49일간 정진한 후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모습을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석재의 재료적 특성을 활용하여 고행상과 해탈상을 동시에 표현했다.

최우수상 작품들은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적 감성을 더했다. 회화부문의 '만배'는 기도하는 다양한 모습을 단순화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범자(梵字)를 연속적으로 물 흐르듯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합장 반배, 엎드려 절을 올리는 모습, 오체투지 등으로 기도하는 순간순간을 분절하여 행위의 리듬을 주고 먹의 농담을 더해 찰나의 순간이 모여 성취되는 만배의 미학을 진정성 있게 구현했다. 공예부문의 '철제은입사여의'는 뜻한 바를 이룬다는 '여의(如意)'의 개념에서 불교적 요소가 뚜렷하게 보인다. 철제 위의 은입사 기법으로 '만자문'을 기본으로 화병 위의 연꽃은 구리를 사용해 색상에 변화를 주는 등 공예적기법이 뛰어나고, 전통적 소재를 조형적, 심미적으로 우수하게 표현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로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신인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국일암 문화재 · 건축적 위상 재조명돼야"

불교사회연구소, 11월17일 학술세미나 개최

벽암각성 스님의 호국 · 호법 활동을 통해 주석처였던 국일암과 소장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11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국토의 재건, 산문의 재건:국일암 벽암각성 스님의 호국활동과 민족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재 확대 방안'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벽암각성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국일암에 보존돼 있는 문화재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준비단계서부터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벽암각성 스님(碧巖覺性, 1575년 선조 8년~1660년 현종 1년)은 17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 승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했고 이후 남한산성을 축성한 공로로 인조 임금으로부터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존호를 하사받았다. 임진왜란 이후 각 지역의 산성 및 사고(史庫) 수호와 승군 활동, 사찰 복원 작업, 다양한 불서 간행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선 후기 불교계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때문에 이날 세미나는 벽암각성 스님의 활동과 그 흔적을 찾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날 김미경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가야산 해인사 산내 암자인 국일암(國一庵)은 벽암각성 스님이 왕에게 하사받은 시호를 딴 것이다. 스님의 주석처이자 입적 후 영당(影堂)으로 운영돼 왔다.

국일암의 '벽암존자진영'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벽암 스님의 유일한 진영본이다. 김미경 감정위원은 "제작시기는 1780년으로, 현존하는 많은 고승진영 가운데 앞서는 작품"이라며 "승병장으로서 벽암 스님의 강직함과 관조하는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함께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인사 국일암의 벽암각성 진영.

벽암각성 호국유산 가치 확인

"국일암 진영 현존 유일 귀중"

김미경 감정위원은 벽암각성 스님과 그 제자들의 영정, 벽암각성, 부휴선수, 고한희언의 부도탑, 그리고 벽암 스님의 제향을 모신 전각이 원형대로 남아있는 소중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입적 후 석비는 세우지 못했으나 영골을 봉안한 부도가 있고 진영을 모신 영당으로서 조선 말기까지도 제향(祭享)을 하며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라며 "부도전의 안내판을 설치해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영당으로서 국일암 인법당의 건축학적 위상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이 '벽암각성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양란 이후 벽암각성의 불교 중흥'을,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조선후기 문파의 형성과 불교 상례정비의 의의 : 부휴계의 〈석문상의초〉와 〈석문가례초〉를 중심으로'를, 김미경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해인사 국일암과 벽암각성 진영(眞影)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 최연식 동국대 교수, 손성필 조선대 교수, 이종수 순천대 교수, 이희정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1 중관학당 겨울캠프' 열린다

오는 12월 10~11일 ZOOM 통해 진행

용수보살의 저서 〈화쟁론〉을 탐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대표 신상환)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ZOOM을 통해 1박 2일간 '2021 중관학당 겨울캠프'를 개최한다.

겨울캠프에서 강독할 용수보살의 저서는 〈화쟁론〉이다. 이는 공사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중관 · 공사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다. 이번 캠프에서는 인도 논리학의 특징과 구사론자들의 일반적 주장, 중관학파의 '나의 주장은 없다'라는 특유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겨울캠프 참가비는 12만원이며, 이메일 자료집과 줌 주소가 포함돼 있다. 중관학당 후원회원은 2만원 할인된다.

이에 앞서 중관학당은 12월 4일 부처님 재세시 풍경을 다루는 2차 무료 법보시 강좌도 실시한다. 이 역시 ZOOM을 통해 진행된다. (010)8801-4037

신성민 기자